

불황 속 인터넷 환경 대비하는 일본 출판계

마이너스 성장, 도서정가제 등 출판계 10대 뉴스 발표...

출판환경의 디지털화로 불황 극복 꾀해

백원근 | 한국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일본 출판계는 거대한 구조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출판사·서점 등의 도산과 폐업이 잇따른 가운데, 출판계는 특성을 살린 제휴와 협력을 통해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모드'를 이용한 출판콘텐츠 판매 서비스와 아울러, 업계 내부적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주문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장 신화의 거품이 걷히고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진 일본 출판계는 거대한 구조변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일본 출판뉴스사가 발표한 2000년 출판계 10대 뉴스와 함께 주요 동향을 살펴보자.

끝없는 불황 속의 출판계 10대 뉴스

① 출판과학연구소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출판시장은 1997년 이래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2000년 -3%)을 기록하고 있다. 판매부수를 기준으로 보면 1987년 수준으로 후퇴한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미증유의 불황 터널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이런 신간시장의 불황과는 대조적으로 신형 중고책방(新古書店)과 만화책집으로 상징되는 리사이클 및 저가시장의 급신장은 출판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② 올 3월 말로 예정된 도서정가제(저작물 재판매가격유지제도) 준폐 여부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결론 발표를 앞두고, 구랍 7일 동 위원회는 '저작물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검토상황 및 의견조치에 대하여'를 발표했다. 이 문서는 인터넷 기반 전자상거래 발전에 대한 대응 등 소비자 관점의 유통구조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존 정가제도 유지의 효과가 의문시되며, 저작물 재판제도의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

하다는 점을 강조해 귀추가 주목된다.

③ 대형 인터넷서점이 속속 등장해 경쟁이 한층 격화됐다. 베텔스만의 일본 법인 BOL, 대기업 합자로 설립된 bk1, 아마존의 진출 및 이들 간의 무료배송 경쟁으로 인터넷서점의 성장이 눈에 띄었다. 특히 도매회사 토한의 e-hon은 서점 경유 주문-배송 시스템과 올 1월부터 시작되는 i 모드 경유 검색-주문 방식으로 눈길을 끌었다.

④ 청소년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소년법'이 개정되고 동경도의 '청소년전전육성조례' 강화, 법제화가 추진중인 '청소년사회환경기본법안' 및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등이 공통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제할 우려가 있어, 이를 둘러싼 출판단체들의 우려섞인 성명서가 속출했다.

⑤ 출판불황 속에서도 다수의 화제작이 나왔다. 한국에서도 번역·출간돼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여성변호사 오히라 미츠요(大平光代)의 파란만장한 자전적 에세이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가 191만부, 세계적인 초베스트셀러 <헤리포터> 시리즈 1, 2권 합계 225만부 돌파, 역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110만부, 《버리는 기술》 100만부 등을 기록해 밀리언셀러 대열에 올랐다. 기타 절약하는 생활의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나, 일본

경제 해설서, IT혁명, 시드니올림픽, 동물점 관련 서 등도 다수 출간돼 독서시장의 수요를 창출했다. 전체 베스트셀러 집계상으로는 문예물의 퇴조와 논픽션의 대거 부상이 두드러졌다.

⑥ '어린이 독서의 해'였던 지난해 5월 국립국제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하는가 하면, 출판계가 펼치고 있는 '독서추진운동'과 병행해 서점의 어린이책 낭독, 캠페인, 강연회, 출생 직후부터 독서습관을 몸에 배게 하려는 '북 스타트'(영국을 모델로 함) 사업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또 학교 독서운동으로 각광받고 있는 '아침독서' 운동도 전국 5000여개 학교에서 실시중이다. 독자층을 키우고 독서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나가려는 모색은 지식사회와 출판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투자기도 하다.

⑦ e-북 서비스 분야 역시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였다. 기존의 개별 출판사별 비즈니스 모델에 더해, 공동사업 형식으로 문고출판사 8사의 전자문고 사이트 '전자문고 파브리'가 개설됐고, 일본 최대 e-북 사이트 '파피레스'(www.papy.co.jp)가 신장세를 과시했으며, 무라카미 류(村上龍) 등 작가 직판 사이트도 늘었다. 하지만 저작권보호, 뷰어 개발 등 당면 과제도 적지 않다.

⑧ 현재 과포화상태인 문고 시리즈의 신규 창간도 붐을 이뤘다. 1년 동안 주요한 것만도 14개 문고 시리즈가 창간됐는데, 기존 문고의 이미지를 탈피해 주제 및 대상독자를 특화한 점이 특징이다.

⑨ 디지털 혁명 속에서 21세기 서점의 위상을 찾기 위한 노력도 분주했다. 특히 일본서점상업조합연합회가 발표한 <서점 21세기 비전> 보고서는 그 일단을 보여준다. 서점의 의식혁명의 필

요성을 언급하며 컴퓨터 도입·활용의 필수성 인식, 서점 이익률 향상을 위한 거래관행 개선(특히 책임판매제 시행), 향후 과제로서 매장의 정보화와 서점의 e-북 판매 연구, 전문 교육기관 설치 등을 제언하고 있다.

⑩ 1970년 사망한 천재작가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의 30주년을 기념한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각종 단행본은 물론, 신초샤(新潮社)가 총 42권짜리 전집을 간행하기 시작해 일본문학사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을 증명했다.

이외에도 기노쿠니야(紀伊國屋)서점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e-북사업 제휴, 《太陽》등 유명 잡지의 잇단 폐간, 잡지《소문의 진상》에 대한 우익의 폭행사건, IT관련 출판업체 등을 지원하는 카도가와(角川)출판사업진흥기금신탁의 출범, 고단샤(講談社)〈일본사강좌〉시리즈의 호조 등도 2000년도 일본 출판계에 기억될 만한 일들이었다.

도서정가제 존폐 여부가 올 최대 이슈

혜본샤(平凡社) 등 대표적 출판사의 대규모 감량경영은 물론, 중소기업도 도매상, 출판사와 서점에서 속출하는 도산과 폐업은 불황에 시달리는 일본 출판계의 단면을 웅변하고 있다. 서점의 경우 작년 1년 동안 1300여개가 폐업했고, 그 절반 규모인 600여개 서점이 창업했다.

일본의 출판불황 요인으로는 장기적인 경제 불황과 아울러 인터넷 이용률 증가, 휴대전화 등 통신비 증대, 도서관 이용의 급증, 신형 중고책방 및 만화잡지 이용 증가 등 총체적인 독서 및 구매 스타일의 변화가 지목된다. 이제 독자들의 저가 지향성, 장서(藏書)감각 상실, 정보수요 구매자의 인터넷으로의 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출판시장의 바탕인 독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출판콘텐츠의 형식과 내용은 무엇인가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는 심각한 지각변동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일본 출판계의 동향에 대해 출판뉴스사의 키오타 요시아키(清田義昭) 대표는 “출판계는 근년 들어 인터넷 혁명 등에 의해 관련업계 전체적으로 극심한 변화와 경쟁 속에서 일정한 조정국면을 거쳐, 이제는 제휴·협력을 찾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고 진단한다. 인터넷서점

이 다양한 형태로 성장하고 있지만 도서수급을 도매상들이 도맡고 있듯이, 업종·업체의 특성을 살린 제휴와 협력이야말로 변화 속의 생존, 상생전략이라는 것이다.

인터넷을 비롯한 IT혁명은 출판환경의 구조 변화를 초래하고, 불황 속에서도 이에 대한 응전력이 출판계의 지각변동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일본내 이용자만도 2천만명을 넘어 무선인터넷 콘텐츠유통 모델로 세계적 관심을 모은 휴대전화용 인터넷 접속 서비스인 'i모드'. 이를 이용해 출판콘텐츠를 판매하는 서비스가 더욱 확충될 전망이다. 슈에이샤(集英社)의 경우 i모드-영점프(만화), i모드-이미다스(시사백과) 등이 호조를 보여 이미 회원수가 5만명을 돌파했다. 또, 출판물 거래업체간 주문-발주 정보화를 위해 개설된 DCS(다이아몬드 컴퓨터서비스)의 출판사 공동 수주용 포털 사이트 '북 오더 넷'(www.book-order.net), 고단샤의 서점 대상 수주 사이트 '고단샤 웹 마르크'(http://manuko.kodansha.co.jp)가 지난달부터 가동되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주문 정보화가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업계 공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Web-EDI(웹전자문서거래) 도입이 시급한 우리 출판유통 현실에도 참조할 만한 소식이다.

2001년 일본 출판계에 예견되는 최대의 이슈는 3월말 발표 예정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도서정가제 존폐 결정이다. 출판계는 정가제 유지를 전

제로 펼친 지난 3년간의 탄력적인 정가제 운용 사례를 모아 〈도서정가제(再販制) 탄력운용 리포트Ⅲ〉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고, 문부성과 신문·출판·잡지계로 구성된 '활자문화간담회'에서는 정가제 유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정가제의 존속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누구도 존폐 결정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도도한 IT혁명의 조류와 출판환경의 디지털화 물결 속에서, 불황의 파고를 넘어 일본출판이 거듭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징표일 것이라고 출판인들은 입을 모은다.●

